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the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3040 Generation in the view of the Discourse on Understanding Congregation*

Hyoung Seop Shi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implications for the more appropriate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3040 generation congregation through a critical and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3040 generation of Korean churches in the view of the discourse on understanding congregation. To this end, this study studies the biblical, theological, and educational grounds of the discourse on understanding congregation in terms of the connection between congregational theory and educational ministry,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3040 generation congregation through human-developmental, faith-developmental, and socio-cultural approaches, and presents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the 3040 generation from a congregational point of view. Through this study, This study presents four implications of educational ministry from a congregational perspective by paying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and intergenerational dynamics of Korean churches in their 30s and 40s: 1) Renewal of family-friendly educational ministry considering various types of families, 2) Reinforcement of life-long discipleship where the Gospel and life issues encounter; 3) Reinforcement of collaborative small groups based on all-line ministry; 4) Presenting th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creative and evangelical ESG ministry.

Key Words

3040 generation, Understanding congregation, family-friendly educational ministry, life-long discipleship, all-line ministry, evangelical ESG ministry

Received June 4, 2023 Revised June 28, 2023 Accepted June 29, 2023

Author : Hyoung Seop Shin,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edu1014@gmail.com

* This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in 2023.

회중론적 관점에서 이해한 3040세대에 대한 교육목회의 함의점 연구*

신형섭**
(장로회신학대학교)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회중론적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3040세대에 대한 보다 비판적이고 통전적인 이해를 통하여 3040세대 회중을 향한 보다 합당한 목양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목회적 함의점들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회중론과 교육목회와의 연계성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교육적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3040세대에 대한 연령 발달적, 신앙발달적,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해 3040세대의 회중론적 이해와 특징들을 기술하였고, 회중론적 관점에서 본 3040세대에 대한 교육목회적 함의점들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한국교회 3040세대의 특징과 세대간 역동성을 주목하며 회중론적 관점에서 네가지 교육목회적 함의로서 1)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정친화적 교육목회로의 전환, 2) 복음과 삶의 이슈가 만나는 전생애주기적 제자양육으로의 강화, 3) 온라인 목회(all-line ministry)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형 소그룹의 강화, 4)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창의적이고 복음적인 ESG 사역의 개발과 실천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

3040세대, 회중론, 가정친화적 교육목회, 전생애주기적 제자양육, 온라인 목회, 복음적인 ESG 사역

□ 2023년 6월 4일 접수, 2023년 6월 28일 심사완료, 2023년 6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23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논문은 2023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2022. 6. 10.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부교수, edu1014@gmail.com

I. 들어가는 말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5월 4일에 지난 3년 4개월 동안 유지하였던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선언하였다(한국경제, 2023년 5월 6일). 지난 3년간 한국사회 전반에 큰 위기와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는 한국교회에도 예외없이 매우 유의미한 위기와 도전을 함께 가져다주었다. 2022년 4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한국사회는 거리두기 해제선언 이후 한국교회는 다방면으로 사회적 일상으로의 복귀와 더불어 교회생활의 회복을 강조하고 실천하기 시작하였지만, 많은 지역교회의 목회현장에서 목도되는 회복은 더딘 걸음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3040세대에 대한 목회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긴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 되어지고 있다. 한국사회 거리두기 해제선언의 시기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통하여 실시한 “코로나 19 이후 한국교회변화 추적조사”에 의하면, 목회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향후 목회중점 세대에 대한 질문에 3040세대(31%)를 1위로 응답하였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148호). 실제로 2022년 11월에 기독교인 304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현장예배를 회복률이 57%로 응답 되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173호). 이는 2022년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3%의 현장예배 회복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응답율이며, 이는 그들의 자녀세대가 되는 교회학교 현장예배의 낮은 회복률(43%)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148호).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사회 인구의 28.7%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전반의 중심세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3040세대에 주목하고 있으며, 사회의 각 영역들에서는 최근 3040세대에 대한 다층적인 세대론적 연구와 유의미한 접근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속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랍직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교육목회 영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안에 있는 3040세대에 대한 충분한 회중연구와 논의가 부족해 왔음이 현실이다. 이천년 교회사를 통하여 회중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다루는 회중론이 목회자론과 목회사역과 더불어 핵심적인 목회요소로 이해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안교성, 2022), 본 연구는 회중론적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3040세대에 대한 보다 비판적이고 통전적인 이해를 통하여 3040세대 회중을 향한 보다 합당한 목양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목회적 함의점들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는 회중론과 교육목회와의 연계성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교육적 근거들을 살펴보도록 하며, 둘째는 3040세대에 대한 연령 발달적, 신앙발달적,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해 3040세대의 회중론적 이해와 특징들을 기술할 것이며, 셋째는 회중론적 관점에서 본 3040세대에 대한 교

육목회적 합의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회중론과 교육목회의 연계성

교육목회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의도적이고, 가치지향적이고, 공동체적인 목회라고 이해할 때, 목회자가 자신이 목양하는 회중들의 삶이 어떠한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 된다(박봉수, 2008, 36). 회중론은 목회자가 목회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회중들의 삶과 그들의 고유한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한 목양적 담론으로서(박보경, 2013; 안교성, 2022; 안석모, 1993), 교육목회의 본질이자 뿌리가 되는 성경은 물론이고 교회사의 주요 문헌들은 이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와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장을 통하여는 회중론과 교육목회의 연계성에 대한 어떠한 성서적, 신학적, 교육적 근거와 논의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회중론의 성서적 이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회중 이해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본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4-15)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안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기노스코”(γινώσκω)는 단지 지식적인 앎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다’ ‘세밀히 살펴서 안다’ ‘대상의 특성을 안다’는 의미를 갖는다(카슨, 2017, 711-712). 또한 여기서 쓰인 안다는 말의 문법형태는 지속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의 현재형으로서, 이는 한번 아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알아감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은 추리에 의해서 알거나 대상의 숫자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별적 특성과 상태와 경향성을 알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역시 목양의 대상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라는 기록(눅 16:15; 요2:24; 눅8:46; 요4:1; 마12:25; 마16:8; 마22:18; 마26:10; 막8:17; 요5:6; 요6:15; 요5:42)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그 원어인 헬라어 단어 역시 ‘기노스코’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역대상 12장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큰 변화의 상황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있었음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시세를 의미하는 헬라어 “비나 라이티”는 ‘이해,’ ‘분별력,’ ‘판단력’을 뜻하는 비나와 ‘시대에 대한’을 뜻하는 ‘라

이팀'이 합쳐진 표현으로, 시세를 안다는 표현은 현재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깊은 안목과 이해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제자원, 2011, 198). 또한, '안다'는 단어인 "요데에"는 문법형태가 분사형태로서 단지 한번 아는 것이 아닌 그 상황을 현재적으로 알고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진리와 그 시대에 대한 깊이있는 안목과 이해를 가진 시세를 함께 붙들고 있는 리더를 주목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서 목양하는 양의 특성과 상태를 아시는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시세와 진리를 함께 알고 있는 리더의 모습은 급격히 변하는 오늘날 회중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별이 요청되어지는 회중론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중요한 성서적인 근거가 된다. 잭슨 캐롤(Jackson W. Carroll)은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적응력임을 지적하면서, 목회가 이러한 변화하는 회중들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변화와 특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회중의 정황을 아는 일"(Knowing Its Context)은 매우 본질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Carroll, 1988, 68-69). 데이빗 켈시(David Kelsey)는 회중을 정규예배에 함께 참여하지만 자신들만의 행동방식과 사고방식과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컨텍스트 안에서 고유한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을 살아내는 기독교 공동체라고 설명한다(Kelsey, 2000, 12-13). 이렇듯 목회자가 회중을 알되, 세밀히 살피며 그들의 특성을 알고 인격적인 관계안에서 알아가되, 한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목회의 매우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2. 회중론의 교회사적 이해

이천년의 교회사는 초대교회부터 목회자는 어떠한 정체성과 책임을 부여받으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지에 관한 이른바 목회자론에 관한 문헌들과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목회자론에 관한 문헌중에는 목회의 대상이 되어지는 회중론에 대한 목회적 이해와 구체적인 실천들도 함께 발견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6세기 서방교회 교부였던 대 그레고리우스(St. Gregory the Great)의 『사목규범』(Regulae Patoralis Liber)의 3부에는 설교의 대상이 되는 회중들을 단순히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설교와 목양을 할 것이 아니라 회중들의 연령별, 신앙 수준별, 도덕 수준별 등과 같은 다양한 형편과 상황에 있는 회중들에 대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이해 요청 및 그들에 대한 목회적 분석을 매우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1996, 88-89).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부처(Martin Bucer)는 『참된 목회학』(Von

der waren Seelsorge)을 집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목사들안에 목회적 돌봄에 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1991, 16). 부처는 “참된 목회와 바른 목회사역이 그리스도의 교회안에 제정되고 수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며(1991, 21), 에스겔서 34장에 나타난 다섯가지 양의 유형에 대한 주석을 근거로 목양에서 요청되어지는 회중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회중의 영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에 관한 사역들을 설명한다(Stupperich, 1964, 141). 청교도 시대의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참된 목사』(The Reformed Pastor)은 목회자의 회중이해에 관한 세심한 이해와 사역이 요청에 중요한 지침과 안내를 제공하는 책이 된다. 특히, 백스터는 회중들 개개인의 영적수준 및 현재적 상황을 알고 그들에게 맞춤형의 양육과 목양이 제공되어짐은 본질적으로 목회자에게 요청되어지는 책임이자 효과적인 목회적 응답임을 강조한다(리차드 백스터, 2003, 238).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또한 기독교에 대하여 들었으나, 교회의 공동체안에서 합당한 예배와 고백과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교회와 그력저력 함께 살아가는 유형, 세상의 교양과 문화인 유형, 교회에 적대시하는 유형 등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목회적 접근과 실천이 요구됨을 강조한다(로셀, 2012, 141-143). 평양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였던 콕안런(Charles A. Clark)은 『목회학』(The Work of the Pastor)을 통하여 급격히 변하는 사회상황과 생활의 변화앞에서 목회자는 늘 회중의 삶을 연구하고 다양한 형편과 이유에 따라 회의하는 사람, 실망중에 있는 사람, 이름만 가진 교인, 근심중에 있는 교인, 고민중에 있는 신자 등과 같은 그 대상에 따른 목양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콕안런, 1991, 111-116). 더불어 콕안런은 교회의 목적에 따라 신도의 생활을 보다 신앙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교회안의 청년세대 및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들을 대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과 구체적 목회 사역들을 제시하기도 한다(1991, 247-262).

교회사의 문헌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목회와 회중이해의 신학적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목양함에 있어서 회중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주목하고, 차별하고, 그에 합당한 섬김과 실천을 제공하는 것은 목회의 매우 본질적인 사역이 된다. 둘째, 동일한 교회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지만 같은 교회안에서는 다양한 영적, 도덕적, 신앙경험적,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음은 오늘날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오늘날 급격히 변하는 시대속에서 살아가는 회중들을 목양한다는 것은 회중들의 삶의 문화와 양식을 바른 성경관과 신학적 기준으로 차별하고 목양하여 그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실천이 요청되어짐을 의미한다.

3. 회중론의 생태 교육사회론적 이해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한 이론들은 사회 구성 요소들간의 조화와 전체적 기능을 강조한 일반체계이론, 인간이 살아가는 생태의 문제를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한 사회생태론, 인간과 생태적 체계간의 상호적 관계를 통해 인간의 발달과 성숙을 주목한 생태체계이론 등이 있다(허창덕, 2012, 60). 본 연구자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새롭게 등장한 3040세대 회중들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이해를 위해 개인과 사회체계간의 지속적인 상호영향과 개인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는 로버타 번즈(Roberta Berns)의 생태 교육사회론(Ecological socialization theory)을 활용하여 3040 회중이해에 대한 함의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발달교육학자인 번즈는 인간과 공동체발달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해왔다. 번즈는 발달심리학자인 유리 브론펜브루너(Urie Bronfenbrenner)가 주장한 한 개인의 변화와 성숙은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의 다양한 체계에 따라서 영향을 상호적 주고받으며 일어난다고 주장한 생태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을 적극적으로 자신이 연구하는 교육의 현장에 적용하여 교사와 학생과 그들을 둘러싼 다층의 사회기관들의 역할을 재개념화하였다(2007, 7). 번즈는 사회화를 “개인이 자신이 속한 그룹들과 사회안에 바람직한 멤버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요청되어지는 지식, 기술, 성품, 태도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돕는 상호보완적, 상호활동적, 생태사회적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개인의 변화는 결코 사회적 상호작용없이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없으며, 동시에 사회도 사회구성원인 개인과의 역동적 관계와 작용없이 변화되지 않음을 강조한다(2007, 20). 번즈는 브론펜부르너의 생태체계 이론에서 제시한 개인의 발달과 변화에 상호영향을 주는 네가지 사회체계인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를 교육의 현장에 적용하면서, 한명의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은 그를 둘러싼 사회학적인 다층적 삶의 형편과 변화를 이해함이 요구되어짐을 강조한다. 교육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교육생태적 체계에는 그의 가족, 친구, 학교, 미디어 등과 같이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microsystem)가 있고, 가정과 학교와의 관계변화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미시체계가 개인의 삶에 겹쳐서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로서의 중간체계(mesosystem)가 있으며, 학교정책, 부모의 직장변화 등과 같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exosystem)가 있고, 사회문화나 가치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시체계(macrosystem)가 있다(2007, 21-26). 이러한 사회적 생태체계를 통한 인간의 변화에는 네가지 핵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첫째, 개인과 사회체계간의 역동적인 관계안에서 일어나는 발달과정이 있고, 둘째, 각 개인이 원래부터 지니고 태어난 생물학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징이 있고, 셋째, 개인이 사회체계를 통하여 변화되고 발달하는 교육현장이 있으며, 넷째, 시간에 따라 일어나는 사회적, 가족적, 역사적 변화이다(Shin, 2013, 71).

생태교육학에서 발견한 회중이해의 교육적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중의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해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다양한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와 연결되어있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보다 깊은 개별화된 이해와 상호작용이 요청되어지며 동시에 그들이 속한 체계적 그룹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고려가 요청된다. 둘째, 개인을 둘러싼 다층의 체계와의 관계는 상호적 관계와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발달과 성숙에 영향을 주기에, 한 개인의 변화와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관만의 노력과 변화가 아닌 그들에게 상호영향을 미치는 다층적 체계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연대하고 협업함이 본질적으로 요청된다.

본 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목회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회중들의 삶을 세밀히 살피며 그들이 처한 다양한 삶의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당한 목양을 통하여 살피고 실천하는 것은 성서적, 신학적, 교육적으로 매우 본질적인 목회의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회중론을 목회자가 목회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회중들의 삶과 그들의 고유한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한 목양적 담론이라고 이해할 때, 최근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위기안에서 살아가는 회중들의 삶을 목양하는 교육목회는 회중들의 삶을 보다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인식과 실천에 관한 회중론적 담론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고 상호역동적으로 대화하며 실천해야 하는 현실앞에 서 있다.

III. 3040세대에 대한 회중론적 이해

필자는 회중론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교육적 근거와 논의들을 통해 3040세대에 대한 교육목회를 위해서 회중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요청됨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장을 통하여서는 3040세대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되 연령발달적, 신앙발달적,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3040세대는 오늘날 한국사회와 교회에 등장한 새로운 회중의 대표적인 세대로서, 연령 및 신앙발달적인 면에서 볼 때 만 30세에서 49세까지의 연령에 있는 미혼 및 기혼세대 모두를 지칭하며, 이 세대는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볼 때 밀레니엄세대(1980년생-1994년생)로부터 전기 X세대(1974년생-1979년생)에 걸쳐있는 세대에 해당한다.

1. 연령발달적 이해

한국 통계청(2023)에 따르면 2021년도 한국사회의 결혼 평균 연령은 남성 33.4세, 여성은 31.1세이며, 30대와 40대의 미혼율은 각각 42.5%와 18.1%로 보고되었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 3040세대는 평균 30세 초반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기혼의 성인초기세대와 미

혼의 청년세대가 함께 구성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미혼의 청년세대에 대한 전통적인 연령발달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자면, 인지발달적으로는 단순한 지식 전달단계를 넘어서 논리적이고 연역적이며 추상적인 사고를 지적인 호기심과 더불어 수행하는 형식적 조작기이며, 심리·사회적으로는 친밀감이라는 삶의 과제를 가지고 자신 및 타인과의 장점과 단점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며 직장, 동료, 가정 등 다양한 사회관계안에서 사랑, 희생, 헌신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체성을 세워가는 시기이다(Erikson, 1963; 김은주·이규민, 2020). 또한, 최근의 청년세대에 대한 연구를 연령발달적으로 시도한 제프리 아넷, 샤론 파크(Sharon D. Parks)와 같은 학자들은 작금의 청년세대를 신생성인기(emerging adult)라는 발달단계로 명명하기도 한다(Arnett, 2004; Parks, 2011). 이들은 현대 청년세대이 육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한 사회의 성인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심리적, 재정적, 관계적, 문화적, 사회적 과제들을 탐색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실험하고 수행하기에는 아직 불안정한 성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 세대의 청년들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탐구와 연계하여 여전히 정체성 및 소명을 관계적, 과정적, 변화적 여정을 통해 탐색하는 여정안에 있으며, 자신의 삶의 가치와 신앙에 대한 자신만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전적, 실존적, 복음적 내러티브를 구성해가며, 자신이 안전하게 속할 수 있는 인식적, 배움적, 네트워크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정을 추구하고 걸어내는 세대이다(박향숙, 2014).

3040세대 기혼의 초기성인세대는 가정을 이루며 자신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정체성과 과제를 부여받으며, 나아가 자녀를 낳음으로서 부모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주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는 인지적으로는 직업과 가정 등 초기 성인세대에 경험되어지는 생의 여정에서 요청되어지는 사고와 판단을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성취와 책임단계로 발달하는 시기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에 대하여 상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지적 사고의 질적 변화를 수행하는 단계이다(Piaget, 2000). 또한 심리·사회적으로 볼 때, 초기 성인세대는 청년기의 친밀성과 더불어 생산성(Generativity)이라는 발달과제를 부여받는 시기이다(Erikson, 1963). 여기서 생산성은 초기 성인세대가 청년기의 친밀감을 뿌리로 하여 상호적 관계안에서 책임감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보상과 조건을 바라지 않고 대상을 위해 양육하고 헌신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힘의 원천이 된다. 도덕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초기 성인세대는 인습후 수준(Post conventional level)으로서 사회나 속한 공동체가 규정하는 의무와 규칙을 수행하되 만일 그 의무와 규칙이 정당하지 않거나 옳지 않음을 인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자신의 내적 도덕의 원리가 우선적으로 작동하게 된다(Kohlberg, 1971).

2. 신앙발달적 이해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는 구조주의 발달이론을 바탕으로 두고 신앙의 성장은 평생에 걸쳐서 인간의 발달과정과 함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있음을 주목하며 신앙발달(Stage of Faith)이론을 제시하였다. 파울러의 신앙발달이론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인지발달이론과 심리사회발달이론과 도덕발달이론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신앙발달은 인생의 단계마다 발견되어지는 특징과 요청되어지는 교육목회적 실천이 있음을 제시한다. 신앙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미혼의 청년세대와 기혼의 초기성인 세대는 개별적-반성적 신앙(Individuative-Reflective Faith)과 결합적 신앙(Conjunctive Faith)단계에 해당한다(Fowler, 1981, 53-85).

개별적-반성적 신앙의 단계는 자신이 속한 신앙공동체가 고백하고 수용하는 가치와 관점을 수용하고 헌신에 참여하는 종합적-인습적 신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의 다음 단계로서, 이제는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기존에 수용하였던 신앙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자주적이고 반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이다(1981, 53-85). 만일 이러한 신앙적인 재해석과 비판적 성찰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경이라면 이 시기의 청년세대들은 신앙에 대하여 회의를 갖거나 속한 공동체 안에서 친밀감이 아닌 이질감과 긴장을 경험하기도 하며, 반대로 청년시기의 신앙적 변증과 안전한 신앙적 토론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결합적 신앙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된다.

신앙발달단계 이론에서 결합적 신앙은 보통 30대 중반 혹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시기로 이해하며, 이 단계를 통하여 자신이 이전 단계인 개별적-반성적 신앙단계에서 경험한 질문들과 태도가 이분법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고 대화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이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타협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지금 믿고 있으며 가치를 두고 있는 신념과 인식과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바라보는 여정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받아들여온 옛 진리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들과 상호의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됨으로 이전단계에서의 자기중심적 신앙적 경향성이 이제는 상호 대화적이고 보다 수용적인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박원호, 1996, 73).

3. 사회문화적 이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3040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는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밀레니엄세대(1980년생-1995년생)와 전기 X세대(1974년생-1979년생)로 구성된다. 역사적으로 유사한 시기에 출생하여 유사한 역사적 사건과 집단적 생활양식을 공유한자들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고방식과 문화양식과 행동양식을 주목한 칼 만하임(Karl Manheim), 마샬, 김희재, 최유정, 최셋별과 같은 학자들은 각 세대별로 보이는 구별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특징으로 세대구분을 시도하였다(최유정·최셋별, 2013).

이러한 세대론적 관점에서 볼 때,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한국사회의 고성장기에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에 문화적으로는 1995년 PC 통신 도입과 1998년 가정용 컴퓨터 보편화와 2000년 해외유학 자율화와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경험하였다, 정치적으로는 1993년도 첫 문민정부와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2000년과 2007년에 1,2차 남북정상회담을 경험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1996년도 OECD에 가입하였고, 1997년도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최셋별, 2016, 201). 이들은 유년기부터 디지털 문화와 해외문화에 익숙한 글로벌 디지털 세대이며, 정치적 탈권위 시대와 강화된 남녀평등인식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한국사회에서 자랐지만 심각한 경제위기와 불안한 현실을 함께 경험하며 성장한 세대이다. 디지털 기술과 문화에 익숙한 밀레니엄 세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주하게 된 비대면 사회속에서도 그들의 경제와 문화 활동, 교육과 사회활동 등 온라인과 SNS를 통하여 활발히 참여해왔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24시간 타인과 연결되어있지만 고립과 외로움을 이전세대보다 더욱 많이 느끼는 세대이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경제적으로 불안사회를 경험한 밀레니엄 세대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지만, 자신만의 개성과 정체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일과 자기계발에 과감한 소비와 투자를 실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참여로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 선한 변화와 공공의 선 및 공정의 이슈에 대하여 중요시 여기면서, 환대적 상호소통을 존중하는 느슨한 연대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0). 밀레니엄 세대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특징을 보이며, FOMO(fear of missing out)에 민감하고 디지털 기술안에서 시간과 공간적 공동체 개념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니며 대면하지 않고도 유의미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다(Allen & Barnett, 2018, 77-82). 이 세대는 풍요로운 삶을 유년기에 경험하고 청소년과 청년기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삶의 질에 가치를 두며, 자신의 온 가족이 이러한 삶의 질을 누려야 함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졌기에, 결혼한 경우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많이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세대이다.

1970년도부터 1979년 사이에 출생한 X세대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경험하며 자라났고, 밀레니엄 세대가 유년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경험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변화와 사건들을 청년기 시절에 경험하였다. 문화세대나 정보화 1세대로 불리는 X세대는 사회적으로는 급격한 산업화와 빠른 도시화로 인하여 가족유

형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면서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적, 탈권위적 성향이 이전 세대보다 강해졌다(김수정, 2022, 34). 정치·경제적으로도 남북의 냉전의 분위기가 완화되고 군부독재에 대한 학생들의 민주화운동도 약화되는 분위기에서 마주한 경제적인 위기에서 이전 세대보다 더욱 사회적인 이슈보다는 개인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었다(김여진·최유석, 2021). X세대의 이전 세대인 1953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아날로그 세상이 디지털 세상보다 더욱 친숙하다면 X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상 모두를 청년기에 경험하여 성장한 세대로서, 오늘날 3040세대에 속한 전기 X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매우 다른 삶의 양식과 사고방식의 특징을 보이는 새로운 세대라고 이해할 수 있다(최셋별, 2018).

이렇듯, 3040세대에 대하여 연령발달적, 신앙발달적,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볼 때, 이 세대의 회중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친밀성과 더불어 생산성이라는 발달과제를 가지고 상호적 관계와 책임감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으며, 기존에 인습적으로 받아 들여 오던 신앙으로부터 보다 개별적이고 반성적이며 결합적인 신앙단계로의 변화의 여정에 있으며, 기존의 30대와 40대와는 매우 다른 사회문화적인 경험과 역사 속에서 상이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IV. 한국 3040세대의 회중론적 특징

이제 한국교회 3040세대 회중들을 앞에서 고찰하였던 연령발달적, 신앙발달적,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회중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볼 때, 이 세대는 가족지향적 삶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세대, 현재의 삶과 공정성이 중요한 세대, 상대적으로 낮은 교회 소속감과 신앙적 고민이 많은 세대, 높은 디지털 친밀도를 가진 세대, 자기계발과 가치소비에 투자하는 세대라고 이해될 수 있다.

1. 가족지향적 삶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세대

경기연구원이 ‘2020 도민 삶의 질 조사’를 재분석한 ‘도민의 세대별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활동의 목적에 대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응답한 비율이 20대와 50대는 각각 4.1%와 8.9%의 낮은 응답을 보였으나 30세대와 40세대는 각각 16.6%와 16.1%로 응답을 하여 2.5배이상 높게 나타났다(유정균, 2021, 243).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설문에도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1위와 2위가 각각 40대 36.7%, 30대 33.2%로 나타났다(2021, 343).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3040세대가 자녀를 출산하는

출산모 연령비율의 79.8%가 되었다(통계청, 2021). 이와 연계하여 주목할만한 통계로 2017년 출산률이 1.1명에서 2021년에는 0.8명으로 줄었으나, 아이들을 소비의 대상으로 하는 의류, 학습, 문화 등 키즈산업은 도리어 온라인에서만 3.4조에서 5조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메조미디어, 2022). 이 시대의 주된 출산과 양육의 부모들인 3040세대의 자녀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러한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재정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적은 숫자의 자녀이지만 이전보다 더 높은 교육열과 소비자본을 가지고 양육하는 이 시대의 자녀세대인 알파세대는 소위 골드키즈, 에잇포켓, VIB라 불리고 있다. 기존의 부모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유년기를 보낸 M세대와 후기 X세대 부모들은 이전세대의 부모세대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자신의 취향과 선호도가 있으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과 추억을 통해 이를 자녀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심리적 경향성이 있다(메조미디어, 2022).

이러한 가족지향적인 가치관을 두는 3040세대의 특징은 교회내 회중들의 구성 및 신앙여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도 발견되어진다. 2022년에 실시한 “3040세대 신앙의식 및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3040세대 중 60.1%는 자신의 신앙생활 시작의 시점이 모태신앙 혹은 미취학과 취학시기에 시작한 것으로 응답하여, 자신들의 신앙생활과 가정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이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음을 보여주었다(정재영, 2023, 40). 실제로 2021년에 조사한 기독교 중고등학생의 80%는 모태신앙이거나 미취학기부터 교회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교회가 이미 가족종교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101호), 이러한 수치는 비기독교신자부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한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거도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교회학교 다음세대 신앙전수에는 여전히 가정과 부모가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음도 나타내어 주고 있다.

2. 현재의 삶과 공정성이 중요한 세대

오늘날 3040세대를 일컫는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현재가 중요한 세대이다. 최셋별 교수는 오늘날 청장년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에 비하여 현재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중의 하나로 국가경제발전의 차이를 지적한다(최셋별, 2022, 70-71). 최셋별 교수에 따르면, 오늘날 60대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청소년 시기였던 1950년대에 1인당 국민총소득이 60달러에서 80달러였으나 이들이 3040세대가 되었을 때에는 5,800달러를 넘어가게 되어 적어도 70배 이상 증가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사회구조적인 배경속에서는 미래와 자신이 속한 직장을 위한 오늘날의 성실과 헌신이 3040세대에게 합당

한 보상을 줄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3040세대가 청소년기였던 2000년 중반부터 한국사회는 고성장사회에서 저성장 사회로 전환되었기에 현재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년 전에 비하여 약 두 배도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오늘날 3040세대들은 이전 부모 세대들이 경험한 사회만큼 긍정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의 자신의 삶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워라벨적 삶의 양식이 가치있는 삶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현재의 삶이 중요함과 연계되어 발견되어지는 3040세대의 특징은 공정성에 높은 민감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에서 남북단일팀으로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구성하려는 시도에서 한국사회는 세대간 공정성에 대한 상이한 입장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조귀동, 2022, 96). 이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팀들이 하나의 단일팀으로 구성이 되어질 때 누군가는 올림픽 경기의 출전기회와 출전시간을 제한받게 되는 현실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보편가치에 대하여 기성세대들과 상이점을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치열한 상대평가 및 경쟁구도안에서 대학입학과 취업과 사회생활을 살아내는 세대에게 민감한 능력주의에 기반한 절차상의 공정성의 중요성에 대한 단면과 현실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경규용·김민재, 2021, 842). 3040세대의 핵심구성원인 밀레니얼 세대가 가지는 공정함에 대한 민감성은 그들이 속한 조직안에서의 합리적인 소통방식과 보상이 업무의 만족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되어 진다(황춘호·김성훈, 2019, 2085).

이와 같은 3040세대가 보여주는 현재의 삶과 합리적 소통을 중요시하는 특징은 기독교 3040세대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어진다. 최근 3040세대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가사노동 및 육아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과 직장 및 사회생활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각각 47%와 60%의 응답자가 신앙자체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다고 응답하였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173호). 또한, 교회안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시간이 없어서'(22.5%)와 '일상생활로 지쳐 쉬고 싶어서'(16.5%)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으로 3040세대에게 있어서 현재의 삶과 신앙생활은 큰 연관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3040세대는 1위 '마음의 평안을 위해'(31%)를 응답하였고, 이와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5060세대는 1위의 답변으로 '구원을 위해'(52%)라고 응답하였다. 3040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질문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31%)과 '교인 간에 사랑이 없는 형식적 관계'(28.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정재영, 2023, 42-43), 이는 3040세대에게 있어서 교회안에서 경험되어진 소통과 관계가 그들에게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였음을 나타내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에 따르면, 청장년세대들로 질

문한 ‘교회에서 변화해야 할 문화’에 대하여 1위가 ‘과도한 헌신요구’였으며, 2위가 ‘권위주의적 문화 및 위계질서’로 응답하였고, ‘청년을 배제한 의사결정 구조’와 ‘청년사역의 위임 및 자율권’도 적지 않은 응답으로 나타났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147호).

3. 상대적으로 낮은 교회 소속감과 신앙적 고민이 많은 세대

최근 기독교 3040세대가 기존의 기성세대보다 신앙수준과 소속감이 낮아졌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해서 실시한 “3040세대 개신교인 신앙의식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신앙단계에 대한 질문에 3040세대는 신앙입문층에 해당하는 1단계인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에 대하여 34%로 응답한 것에 비해 5060세대는 14%로 응답하였고, 신앙중심층에 해당하는 4단계인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에 대하여는 3040세대가 11%만 응답한 것에 비하여 5060세대는 30%가 응답하였다. 이는 3040세대는 기성세대들보다 신앙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040세대들은 40%가 현재 신앙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신앙적 회의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이어서’라는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173호). 심지어 앞으로 10년후 교회생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충격적이게도 53%만이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나갈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40%는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3040세대는 교회내 소그룹 활동에 대하여도 구역과 같은 기초 소그룹(39%)과 남·여전도회와 같은 연령별 소그룹(33%)도 모두 5060세대보다 현저히 낮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3040세대가 보이고 있는 교회에 대한 낮은 소속감이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설문문을 통하여 나타난 ‘출석교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많은 응답으로 ‘소속된 모임이 없어서’(50%)라고 대답한 것과 긴밀한 연결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147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조사한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인중에서 29%가 가나안 성도로 응답하였으며, 가나안 성도비율에 관한 질문에는 30대와 40대의 성도가 모두 33%로 응답하여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 더욱 높은 가나안 성도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가나안 성도와는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특징으로 더불어 한국교회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회중그룹은 바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다. 플로팅 크리스천(floating Christian)이란 기존의 기독교 전통이나 교리나 신앙패턴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용어로서(지용근, 2022, 32),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주일예배, 주

중예배, 성경공부, 교제, 봉사, 선교 등 핵심적인 신앙생활을 기존의 정해진 시간과 장소와 소속이 아닌 온라인과 동영상 콘텐츠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용을 선택하여 참여하는 모습이 3040세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정재영, 2022).

4. 높은 디지털 친밀도를 가진 세대

3040세대는 삶의 문화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경험한 세대로서, 디지털 환경과 기술을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세대이다. 메조미디어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3040세대의 주된 구성원인 M세대들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이나 요리 등 정보를 얻는 미디어로는 네이버(74%)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능, 요리, 교육 등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미디어로는 유튜브(79%)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지인과의 소통이나 이슈에 관한 확인하는 목적으로는 인스타그램(80%)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메조미디어, 2022). 특히 물건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재정과 시간을 사용하려고 할 때, 영향을 받는 우선적인 요인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온라인 상의 인플루언서 추천과 리뷰(45%)가 1위였으며 그 주된 통로는 모바일 광고(77%)였다.

또한, 3040세대의 디지털 의존도는 자녀 양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세대들은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를 얻는 미디어 역시 가족이나 친구 등 육아선배(66%, 복수응답)보다도 온/모바일 커뮤니티(71%, 복수응답)가 더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육아관련 커뮤니티도 온라인 카페(91%, 복수응답)가 가장 높은 미디어로 보고되고 있다. 미취학기 자녀를 둔 3040세대의 부모들은 맘스다이어리(www.momsdiary.co.kr)와 같은 온라인 육아일기를 통하여 매일 자신의 삶을 기록하며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클래스팅(www.classting.com), 아이엠스쿨(<https://school.iamservice.net>) 등과 같은 온라인 알림장과 같은 플랫폼을 통하여 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학습 내용을 학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확인 및 참여하고 있다(메조미디어, 2022). 디지털 미디어는 3040세대가 자신의 자녀들과 놀이를 위해서 필요한 장소나 활동 등을 찾을 때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놀이의 발견(<https://nolbal.com>)과 같은 앱은 자녀와의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와 활동 등에 관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높은 디지털 친밀도는 기독교 3040세대의 신앙생활에도 예외없이 발견되어지고 있다. 2021년에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예장통합 총회세대별 위원회 다음세대 분과가 함께 조사하고 3040세대가 가장 많은 구성원으로 참여한 “코로나 이후 다음세대 교회교육현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교단총회 및 기독교교육 연구기관에서 제공받기를 바라는 교육리소스

에 대하여 1위 ‘동영상, 미디어 자료 등 설교자료’(38.5%, 복수응답), 2위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프로그램 자료’(38.2%, 복수응답), 3위 ‘온-오프라인 성경공부자료’(36.8%, 복수응답)로 응답하였다(김도일, 2022, 41). 코로나 이후 온라인 및 디지털 미디어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 ‘실시간 성경공부,’ ‘녹화형 예배,’ ‘녹화형 교육콘텐츠 제작,’ ‘교회밖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용’에 관한 항목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정기적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022, 40). 2022년도에 3040세대가 주된 연령대인 부목사그룹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이후 부목사가 보는 한국교회”의 설문에서도, 온라인 사역과 한국교회의 미래에 관한 질문에 온라인 사역이 한국교회 미래의 생존과 연결되어있다는 응답이 74%가 되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156호).

5. 자기계발과 가치소비에 투자하는 세대

3040세대가 보여주는 특징 중의 하나는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세대라는 것이다. 통계청(2022)을 통하여 발표되어진 유배우자 가구기준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은 3040세대(30대 53%, 40대 55%)는 일터에서의 자아성취와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모두를 잘 하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세대 맞벌이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따르면,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재테크’와 ‘행복’을 제외하면 ‘자기계발’이 가장 높다(대한경제, 2020, 1.6).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딜라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42개국 13,000명 넘는 밀레니얼 직장인 중 2년안에 직장을 옮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도에 39%에서 2019년도에는 49%로 상승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2018년도 42%에서 2019년도 52%로 지속 상승하였다(김나이, 2022). 이러한 현상을 입사와 취직을 위한 치열한 경쟁사회안에서 자라난 3040세대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직장에 대한 희생보다 자신의 자기계발이 전제된 지속적 성장과 워라벨적 삶인 것을 나타내주는 모습을 반영한다(김나이, 2022).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일에 높은 가치를 두는 많은 3040세대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시간은 곧 다가올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웰빙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가 된다(이혜정, 2012). 대표적인 인터넷서점인 예스24를 통해서 발표되어진 2022년 연간 도서판매 트렌드 역시 자기 계발서에 관한 도서 구입의 가장 높은 구매율을 보인 세대는 3040세대(25.8%)인 것으로 나타났다(KBS 뉴스, 2022, 12. 23). 이렇듯 공정성과 앞으로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아계발에 시간과 재정과 가치를 높게 두는 특징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와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기인 오늘날 한국사회의 3040세대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발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었다.

또한, 유년기와 청소년 시기에 문민정부의 등장(1993년),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1995년)

과 탄핵(2004년)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슈앞에서의 촛불집회와 인권에 관한 조례공포 등을 경험한 3040세대들은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에 따라 우선적인 소비를 하는 가치소비에 적극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최셋별, 2022, 72-73). 온라인상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드러낸 자신의 의견이 대형 브랜드의 트렌드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정치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험한 3040세대들은 경제, 교육, 환경, 제조, 윤리, 정치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반영한 이른바 ‘착한 소비’나 ‘미닝 아웃’(meaning out)이라고 불리는 지속가능한 가치소비에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천하고 있다. 최근 한 커머스 미디어 그룹인 크리테오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부합한다면 전보다 더 소비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친환경제품을 구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밀레니얼 세대는 모두 절반이상이 그럴 것이라고 대답하였다(메조미디어, 2022). 이러한 응답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소비의 문법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으로부터 대안적 소비와 신념과 명분이 만나는 점으로 옮겨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ESG경제, 2021, 2. 5).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3040세대에게 해당 기업이 실천하는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은 가치소비를 통한 자신과 자녀세대가 살아가게 될 세상에 대한 지속적인 선한 영향력에 참여하는 삶의 문법과 우선순위에 매우 큰 기준이 되고 있다. 2022년에 실시한 “3040세대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3040세대 중 61.7%는 교회가 실천하는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출석교회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역할 수행’(33.3%)이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왔다(정재영, 2023, 42-43). 이는 3040세대의 서리집사와 직분이 없는 성도에게 교회의 중직을 맡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58.5%가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을 고려해볼 때(2023, 42-43), 3040세대가 교회내적인 활동에 비하여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삶의 양식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다.

V. 회중론적 관점에서 본 3040세대 목회에 대한 교육목회적 함의

한국교회 3040세대의 특징과 세대간 역동성을 주목하며 회중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한국교회는 3040세대를 향한 다음의 네가지 교육목회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정친화적 교육목회로의 전환이다. 성인 기성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회에 대한 낮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안에서 자녀세대와 같은

가치와 추억을 공유하기를 지향하는 가정지향적 삶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3040세대에게 기존의 핵심적 교육목회의 현장인 주일예배, 말씀선포, 신앙양육, 봉사, 선교 등을 세대통합예배, 가족단위 선교여행,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가정예배 등 가정친화적 교육목회로 전환함은 이들로 하여금 교회만이 아닌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인한 공유된 이야기, 공유된 사진, 공유된 의례, 공유된 비전을 경험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교육목회의 장을 세워나갈 수 있다. 물론 1인 가정을 비롯하여, 2인 가정, 3인 가정, 4인 가정 등 다양한 가정유형을 가지고 있는 3040세대의 다중적이고 생태계적인 삶의 차원을 고려하여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등 각 회중과 가정이 처해있는 사회학적인 다층적 삶의 형편과 변화를 이해함으로 어느 가정들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세심한 목양과 소통이 전제된 가정친화적 교육목회가 요청되어진다. 예를 들어, 교회학교 위탁형 패러다임으로부터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가정친화적 신앙양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가정에서도 신앙부모를 통해 자녀가 부모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목양할 때, 신앙 부모와 믿음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이른바 기독교 4인 가정만을 기준으로 가정예배자료와 인도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인 가정, 2인 가정, 3인 가정, 한부모 신앙가정, 3세대 가정, 미취학 자녀 가정, 유년기 자녀 가정, 청소년기 자녀 가정, 청년기 자녀가정, 자녀가 없는 부부가정 등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보다 친절하고 다양한 자료와 안내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학교 동력을 위한 우선적인 목양으로 부모교육이 우선적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가족종교화의 특징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3040세대 부모세대들을 향한 가정 신앙교사로서의 역량구비 부모교육은 가정친화적 교육목회의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교육목회적 실천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복음과 삶의 이슈가 만나는 전생애주기적 제자양육으로의 강화이다. 성인 인생전환기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적 고민과 회의가 많으며 동시에 현재의 삶이 매우 중요한 3040세대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삶의 어려움에 대한 복음적 진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진정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생애주기적 제자양육은 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목회의 현상이 될 수 있다(박상진, 2018). 오늘날 3040세대가 고백하듯이 그들이 성인초기를 거쳐 성인중기의 인생주기를 거쳐내며 감당해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관계적, 심리적 어려움들은 그들의 신앙생활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시기는 연령발달적으로는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안에서 친밀성과 더불어 생산성이라는 발달과제를 가지고 상호적 관계와 책임감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신앙적으로는 인습적 단계를 넘어서서 반성적이며 결합적인 신앙단계로의 여정에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뉴노멀(new normal)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경험과 역사속에서 새로운 생활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 특히나 자기계발에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3040세대들에게 만일 성인 초기와 성

인중기의 인생주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과 응답에 대하여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양육과 목양을 제공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회의나 질문이 부정적인 비판이나 체념이 아닌 보다 긍정적이고 신앙적이며 공동체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면, 3040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공부나 신앙양육이 프로그램안에 이 세대들이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자 과제로 여기는 돈, 진학, 유학, 취직, 이직, 결혼, 자녀교육, 자녀신앙양육, 직장생활, 건강 등과 같은 이슈들을 복음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자 삶이 되는 지에 대하여 다룰 수 있다. 사실 3040세대의 핵심적인 인생주기 중의 하나인 결혼과 출산의 여정을 지나는 부부들은 지역에 있는 동주민센터나 온라인 맘스클럽(www.moms-club.co.kr)과 소그룹을 통해서 이 시기의 인생전환기에 요청되어지는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인생주기 시민 교육뿐만 아니라 태교와 출산관련 육아정보, 동네병원 및 돌잔치 정보, 양육과 탁아지원 등 세심한 돌봄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받고 있음에 비하여, 많은 지역교회는 임신과 출산의 여정을 걸어내는 회중들에게 교회공동체만이 제공할 수 있는 영적이고, 전인적인 돌봄과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만일 교회가 이러한 3040세대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의 이슈에 대하여 세심한 신앙공동체적 관심과 더불어 친절한 동행과 복음적인 양육을 제공한다면, 3040세대들은 교회안에서 자신의 중요한 삶의 전환기에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만한 생애주기 신앙공동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셋째는 올라인 목회(all-line ministry)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형 소그룹의 강화이다. 높은 디지털 친밀도를 가지고 살아가며, 참여와 환대적 공동체를 통하여 합리적 소통과 소속감을 갖기를 선호하는 3040세대에게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누구나 교회안의 신앙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올라인 기반의 소그룹 모임은 그들로 하여금 공유된 이야기와 사건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회중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의 경계를 유기적으로 넘나들며 모든 회중이 같은 신앙적 내용과 사건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올라인 기반의 소그룹 모임은 디지털 의존도와 친화력이 높으면 서도 현장적인 경험과 체험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3040세대에게 신앙공동체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교육목회의 현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기 개성이 강하고, 현재적 삶이 중요하며, 공정성이 중요한 세대인 3040세대에게 있어서 소그룹 공동체의 구성과 활동 역시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 미리 교회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형편, 관심, 사명, 이슈 등 다양한 공유점을 가지고 모여서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가는 회중 협업형 소그룹이 더욱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신앙양육의 현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소그룹 구성의 플랫폼을 온라인상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제공하는 현장 소그룹, 온라인 소그룹, 하이브리드 소그룹(현장+온라인 소그룹)과 각 소그룹별 다루는 장소,

시간, 내용, 기간, 대상 등을 열어놓고, 회중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관심과 형편에 따라 개인 혹은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또한, 회중 협업형 소그룹이 자칫 회중 개인의 신앙 소비주의적 성향으로 나아가지않고 신앙공동체적 성숙의 현상이 되게하기 위하여 성서적이고 목회적으로 회중들의 삶과 형편을 잘 이해하고 목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를 바르게 해석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재생산 할 수 있는 디지털 리더십적 역량도 함께 구비할 수 있는 리더교육 커리큘럼과 실천이 요청된다(김성중, 2020).

넷째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창의적이고 복음적인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사역의 개발과 실천이다. 가치소비와 선한 영향력에 자신의 재정과 시간을 사용하기를 선호하는 3040세대는 교회가 마을 및 세상과 함께 선한 연대를 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선교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는 마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심각한 전염병과 어려움 중에도 자발적 섬김과 헌신의 삶의 양식과 실천으로 세상을 지속적으로 돌보았을 때 강력한 신앙정체성과 더불어 복음전파의 선교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Stark, 2016), 무너진 생태계 기후문제, 사회 안전문제, 연약한 자들에 대한 복지과 돌봄, 공정거래 이슈 등 지금 한국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과제앞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 섬김의 기독교적 시민의식과 실천의 자리에 3040세대를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동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사순절이나 대림절과 같은 교회의 절기를 활용하여 3040세대에게 지역의 사회기관이나 이웃들과 함께 연대한 교회안 혹은 교회밖에서의 다양한 성경적이고 대안적인 사회 및 환경운동이나 실천에 대한 창의적이고 가족참여적인 사역을 위임하고 지원하는 것은 이 세대들로 하여금 보다 주체적으로 세상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구현에 동참하는 경험을 안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회는 3040세대들에게 ESG 가치에 대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복음적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목회적 커리큘럼과 실천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본 연구는 코로나 전환기의 한국교회가 회중론적 관점에서 3040세대와 그 특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코로나 팬데믹 전환기에 요청되어지는 교육목회적 함의점들을 발견하고 제시하였다. 회중론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교육적 근거와 논의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3040세대를 향한 보다 합당한 목양을 위해서 이 세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요청됨을 확인하였으며, 연령발달적, 신앙발달적,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3040세대가 친밀성

과 생산성이라는 발달과제를 가지고 상호관계와 책임적 삶을 살아가며, 자신들의 신앙을 인습적으로 받아들임을 넘어서서 개별적이고 반성적인 여정을 걸어내고, 이전 기성세대와는 상이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해 그들만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갖고 살아감을 확인하게 되었다. 회중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볼 때, 3040세대는 가족지향적 삶에 우선적 가치를 두며, 현재의 삶과 공정성이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교회 소속감과 신앙적 고민이 많으며, 높은 디지털 친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계발과 가치소비에 투자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한국교회 3040세대의 특징과 세대간 역동성을 주목하며 회중론적 관점에서 네가지 교육목회적 함의로서 1)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한 가정친화적 교육목회로의 전환, 2) 복음과 삶의 이슈가 만나는 전생애주기적 제자양육으로의 강화, 3) 온라인 목회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형 소그룹의 강화, 4)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창의적이고 복음적인 ESG 사역의 개발과 실천을 발견하게 되었다. 소망키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의 형편과 상태를 아시고 목양하셨듯이, 본 연구의 교육목회적 함의점과 실천에 대한 제언들이 코로나 팬데믹 전환기에 있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3040세대를 회중론적 관점에서 보다 더 합당하게 목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목회적 디딤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 고 문 헌

- 곽안련 (1991). **목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wak, A. R. (1991). *Works of Pastors*.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경규웅, 김민재 (2021). 한국 사회의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과 공정성: 이직의도에 대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와 밀레니얼 세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1, 841-863.
- [Kyung, K. W. & Kim, M. J. (2021). Millennial civil servants and fairness in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urnover intention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illenn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ublic Administration*, 2021, 841-863.]
- 김나이 (2022. 6. 6). 커리어에 액셀을 다는 법. **EBS1**. <https://ebr.ebs.co.kr/ebr/series?siteCd=EB &prodId=427438&courseId=10205720&stepId=60037330&lectId=60220130>에서 인출.
- [Kim, N. E. (2022. 6. 6) How to Accelerate Your Career. *EBS1*.]
- 김도일 외 (2022).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의 내일이 있다: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동연.
- [Kim, D. I. et al. (2022). *The Church Has a Tomorrow Only If Church Schools are Present: Christian Education in The New Normal Era*. Seoul: Dong Yeon Press.]
- 김수정 (2022). 세대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세대, X세대, 그리고 MZ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5, 29-58.
- [Kim, S. J. (2022).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Generational Happines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Baby Boom Generation, Generation X, and Generation MZ.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Kookmin University*, 35, 29-58.]
- 김성중 (2020).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3, 39-64.
- [Kim, S. J. (2020).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 COVID-19.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9-64.]
- 김여진, 최유석 (2021). 세대별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세대의 탐색적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727-736.
- [Kim, Y. J. & Choi, Y. S. (2021). Exploratory Study of Gener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 727-736.]
- 김은주, 이규민 (2020). 청년기의 기독교 변형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3, 121-150.
- [Kim, E. J. & Lee, K. M. (2020).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al 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Adults: With a Focus on the Employment of Jung's Unconscious Confrontation and Loder's Transformational Theor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121-150.]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0).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1**. 서울: 위즈덤하우스.
- [Daehakneil-20sLab (2020). *Millennial-Gen Z Trends 2021*. Seoul: Wisdom House Press.]
- 메조미디어 (2022. 10. 14). M세대 부모 소비자 리포트. https://www.mezzomedia.co.kr/insight_m?page=1&search_text=m%EC%84%B8%EB%8C%80&year=&month=&tabs=1에서 인출.
- [Mezzomedia. (2022. 10. 14). M-Generation Parent Consumer Report.]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6. 25). 코로나 이후 크리스천 청소년의 신앙생활 변화 1. **넘버스 101호**.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01st_210625_Full_Report.pdf에서 인출.
- [Ministry Data Institute (2022. 6. 25). Changes in Christian youth's religious life after COVID-19 1. *Numbers 101*.]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6. 7).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결과 4차. **넘버스 147호**.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47_220607_A_Part.pdf에서 인출.
- [Ministry Data Institute (2022. 6. 7). Korean church corona tracking results4. *Numbers 147*.]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6. 14).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결과3. **넘버스 148호**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60에서 인출.
- [Ministry Data Institute (2022. 6. 14). Korean church corona tracking results3. *Numbers 148*.]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8. 16). 코로나 19이후 부목사가 보는 한국교회. **넘버스 156호**.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156_220816_A_Part.pdf에서 인출.
- [Ministry Data Institute (2022. 8. 16). Korean church after COVID-19 in the view of assistant pastor. *Numbers 156*.]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12. 27). 3040세대 개신교인 신앙의식 조사. **넘버스 173호**.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76에서 인출.
- [Ministry Data Institute (2022. 12. 27). Investigation of religious consciousness of Protestants in their 30s and 40 s. *Numbers 173*.]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3. 7).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넘버스 182호**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81에서 인출.
- [Ministry Data Institute (2023. 3. 7). Survey on Religious Life and Faith Consciousness of Koreans in 2023. *Numbers 182*.]
- 박보경 (2013).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적 회중 모색. **선교신학**, 32, 201-234.
- [Park, B. K. (2013). Building a Missional Congregation from Evangelical Perspective. *Theology of Mission*, 32, 201-234.]
- 박봉수 (2008). **교육목회의 이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Park, B. S. (2008). *The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Ministry*. Seoul: PCK Books.]
- 박상진 (2018). 부모발달단계에 따른 기독교부모교육과정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5, 11-46.
- [Park, S. J. (2018). Curricula for Christian Parents of Students Based on Parents' Developmental Stag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5, 11-46.]
- 박원호 (1996).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Park, W. H. (1996). *Faith Development and Christian Education*. Seoul: PUTS Publish.]
- 박향숙 (2014). 신생 성인기를 위한 기독교 신앙교육. **기독교교육논총**, 37, 299-311.
- [Park, H. S. (2014). Christian Faith Education for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7, 299-311.]
- 안교성 (2022). 목회와 신학에 있어서 회중론의 의의에 관한 연구: 교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61, 99-127.
- [Ahn, K. S. (2022).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Discourse on Congregation for Pastoral Care and Theology: With Special Reference to Cases in Church History. *Journal of the Church History Society in Korea*, 61, 99-127.]
- 안석모 (1993). 이야기 회중론. **기독교사상**, 412, 252-264.
- [Ahn, S. M. (1993). The Discourse on Congregation and Story. *Christian Thought*, 412, 252-264.]
- 유정균 외 (2021). **2020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수원: 경기연구원.
- [Yoo, J. K. et al. (2021). *2020 Survey on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of Gyeonggi Province*, Soowon: Gyeonggi Training Institute.]
- 이지훈, 이지현 (2023. 5. 6).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韓, 위기 대응단계 내릴 듯.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50560781>에서 인출.
- [Lee, J. H. & Lee, J. H. (2023. 5. 6). WHO lifts coronavirus state of emergency... Korea likely to lower crisis response level. *The Korea Economy Daily*.]

- 이혜정 (2012). **다수준 분석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연구: 세대별 일의 가치와 제도 및 지원분위기의 효과**.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Lee, H. J. (2012). *A study on the work-life balance through multi-level analysis: the effects of generational work value and supporting institutions & climate*. Seoul: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 조귀동 (2022). MZ, 초격차와 공정을 위한 투쟁의 세대. **철학과 현실**, 132, 95-109.
- [Joh, K. D. (2022). MZ, the generation of super-gap and struggle for fairness. *Philosophy and Reality*, 132, 95-109.]
- 정재영 (2023). 교회, 3040세대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라. **목회와신학**, 407, 38-45.
- [Jung, J. Y. (2023). Church, Strengthen the Link with the 3040 Generations. *Ministry and Theology*, 407, 38-45.]
- 지용근 외 (2022).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서울: 규장.
- [Ji, Y. G. et al. (2022). *Korean Church Trend 2023*. Seoul: Kyujang press.]
- 최샛별 (2018). **한국의 세대 연대기: 세대 간 문화 경험과 문화 갈등의 자화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Choi, S. B. (2018). *Generational Chronology in Korea: A Self-portrait of Intergenerational Cultural Experiences and Cultural Conflict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최샛별 (2022). 한국의 MZ세대 이야기: 기성세대의 상식을 넘어서다. **지식의 지평**, 32, 70-71.
- [Choi, S. B. (2022). The Story of Korea's MZ Generation: Beyond the Common Sense of the Older Generation. *Orbis Sapientiae*, 32, 70-71.]
- 최유정, 최샛별. (2013). 연령대별 세대 의식과 정치적 태도를 통해 본 세대의 경계: 정치적 세대의 가능성에 관한 시론. **사회과학연구논총**, 29, 159-201.
- [Choi, Y. J. & Choi, S. B. (2013). Generational Boundarie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Attitudes: Preliminary Study for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Generations.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29, 159-201.]
- 허창덕 (2012).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의거한 장애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분석. **재활복지**, 16, 57-80.
- [Huh, C. D. (2012). An Analysis of Welfare Policies and Service Delivery for the Disable People: Based on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 Theor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6, 57-80.]
- 황춘호, 김성훈 (2019).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 요인: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2, 2085-2105.
- [Whang, C. H. & Kim, S. H. (2019). The Effects of Job Satisfac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Millennial Office Workers in a Large Corporation.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2, 2085-2105.]
- Allen, H. C. & Barnett, C. (2018). *InterGenerate: Transforming Churches through Intergenerational Ministry*. Abilene: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Press.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xter, R. (2003). **참된 목사**. 고성대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원저 1829 출판)
- [Baxter, R. (2003). *The Reformed Pastor*. Translator: Koh, S. D. Seoul: Christian Digest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1829)]
- Berns, R. M. (2007). *Child, Family, School, Community: Socialization and Support (7th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 Bucer, M. (2014). **참된 목회학**. 최윤배 역. 용인: 킹덤북스. (원저 1538 출판)
- [Bucer, M. (2014). *Von der waren Seelsorge*. Translator: Choi, Y. B. Yongin: Kingdom Books. (Original book

- published in 1538)]
- Carroll, J. W. (1988). The Congregation as Chameleon: How the Present Interpret the Past?. Elis Nelson, ed. *Their Power to Form and Transform*. Atlanta: John Knox Press.
- Carson, D. A. (2017). **요한복음 주석**. 박문재 역. 서울 : 부흥과 개혁사. (원저 1990 출판)
- [Carson, D. A. (2017).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The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Translator: Park, M. J. Seoul: Revival & Reformation.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90)]
- Chrysostom, J. (1992). **성직론**. 채이석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원저 1866 출판).
- [Chrysostom, J. (1992). *On the Priesthood*. Translator: Chae, E. S. Seoul: Emmaus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1866)]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Fowler, J. (1981). *Stage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New York, NY: Harper Collins Publishers.
- Kelsey, D. (2000). On the Christian Congregation. Hough & Wheeler. eds. *Beyond Clerical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Kohlberg, L. (1971). Stages of Moral Development as a Basis for Moral Education. *Moral Education*. New York: Newman Press.
- Piaget, J. (2000). *The Psychology of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 Parks, S. D. (2011). *Big Questions, Worthy Dreams: Mentoring Emerging Adults in Their Search for Meaning, Purpose, and Faith*. New York: Jossey-Bass.
- Rochelle, J. C. (2012). **디트리히 본회퍼의 목회학 총론**. 김윤규 역.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원저 1985 출판)
- [Rochelle, J. C. (2012). *Dietrich Bonhoeffer's Spiritual Care*. Translator: Kim, Y. K. Seoul: Hanshin University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85)]
- Shin, H. S. (2013). *Eucharistic Pedagogy for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 Stark, R. (2016).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역. 서울: 좋은씨앗. (원저 1997 출판)
- [Stark, R. (2016). *The Rise of Christianity*. Translator: Son, H. S. Seoul: Good Seed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97)]
- St. Gregory, G. (1996). **사목규범**. 전달수 역. 대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영성신학연구소.
- [St. Gregory, G. (1996). *Regulae Patoralis Liber*. Translator: Jeon, D. S. Daegu: Hyosung Catholic University Spiritual Theology Institute]
- Stupperich, R. (1964).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Band 7: Schriften der Jahre 1538 - 1539*.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